

---

# 2020년 제2호 방송심의보고서

---

2019. 1. 3. ~ 1. 9.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최일구의 정말		
방송일자	2020. 1. 3.	시청률	0.004

### 【총 평】

<최일구의 정말> 제14회는 2020년 새해 첫 손님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을 초대하여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강한 나라”에 대한 정책 비전을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신촌 연세로 ‘가치샵시다 크리스마스 마켓 현장’부스 세트에서 펼쳐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대담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장관의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특히, 대한민국 국가대표 공동브랜드 ‘브랜드K’로 해외매출을 크게 올리는 성공사례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의 새해 목표인 ‘스마트 대한민국,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집중적으로 다룬 내용은 신년기획으로서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한 점이 돋보였다.

### 【구성 및 내용】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강한 나라>에서는 새해 각종 지원정책과 희망적인 내용 등이 소개돼 신년기획으로서 그 의미가 컸다. 특히, 국민 관심사인 ‘경제’분야, 그 중에서도 민생과 직결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아이টে으로 정해 관심도를 높였다. 이 시점에서 왜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정책을 견인해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부각해 설득력을 높였다.

전체적인 내용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변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인식 변화의 필요성, 제품의 판매와 구매 방식의 변화는 소상공인들에게 절체절명의 시대적 흐름, 그 변화를 위한 판매 방식 정책 지원 등 정부가 나서서 소상공인을 응원하고 시민들에게 홍보하면서도 시민들과 함께 해야만 하는 정책들을 잘 설명하였다.

4차 산업혁명시대 마찰에 대한 사례로 ‘마차와 자동차’, ‘영국의 붉은 깃발법’ 등을 소개했고, 온라인 도입에 대한 필요성으로 떡방앗간 판매를 온라인으로 바꾸자 매출이 2.5배 급신장했다는 사례도 언급했다.

스마트 대한민국,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의 접목을 위한 ‘DNA KOREA’,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설득력이 있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공동브랜드 ‘브랜드K’로 해외매출을 크게 올리는 성공사례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의 새해 목표인 ‘스마트 대한민국,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낮은 이자 대출 등 벤처기업 등에 필요한 정보를 소개해 시청자 만족도를 높인 점도 긍정적이었다.

### 【참고사항】

30:15 ‘마차와 자동차가 공존하던 시대...마차를 고집하면 뒤쳐질 수밖에...’라는 자막에서 ‘뒤쳐질 수’가 아닌, ‘뒤쳐질 수밖에’가 맞는 표기이다.

프로그램	우리동네 개선문		
방송일자	2020. 1. 4.	시청률	0.009

## 【총 평】

충남 예산군과 아산시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축산시설 악취 민원'에서는 광역지자체의 적극적인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했고 또 파주, 고양, 양주 간 '경계지역 지각제설' 문제는 3개 시의 공동노력을 통해 지자체 간 '상생협력'이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지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시·군 경계 축산 악취...광역단체 개입해 조례로 해결'은 기초자치단체 간에 발생한 갈등을 광역단체가 개입해 조례제정과 협업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사안을 살폈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자세히 짚고 오랜 시간 해결하지 못했던 이유까지 깊이감 있게 다뤄 물입도 있게 시청했다.

'시 경계도로 '지각 제설' 지자체 간 협업으로 해결'은 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해 해결한 사례를 살피고 정부의 '공간통합·시설공유형 협업 선정 사업'으로 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해 정부정책의 긍정적인 면모가 돋보였다.

## 【구성 및 내용】

### ■ 시·군 경계 축산 악취...광역단체 개입해 조례로 해결

예산군과 아산시 간의 경계지 축산시설 설치로 인근 지역주민이 받고 있는 피해 실태를 인터뷰를 통해 자세히 전하고 행정구역이 달라 이런 피해를 입는 지역이 많음을 강력히 피력해 파급력 있었다.

또, 충청남도 의회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고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 ■ 시 경계도로 '지각 제설' 지자체 간 협업으로 해결

파주시와 고양시, 양주시가 협업 사업으로 해결해 가고 있는 제설 작업의 현황을 소개하고 기타 다른 시군의 협업도 함께 소개해 그 의의를 부각시켰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역할은 정부가 지자체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협업사업을 선정해 시행했기 때문임을 설명해 정보전달 측면에서 매우 유용했다.

## 【참고사항】

09:50 '지각제설'의 경우 2012년-2013년 관련 민원 통계를 보여주면서 해묵은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6년 전 자료라는 점에서 데이터로서의 효용성에 의문이 갔다.

10:10 눈으로 인한 차량 정체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 유튜브 채널의 자료영상을 사용했는데, KTV의 자료에서 비슷한 화면을 찾아 사용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16:40 '공간통합, 시설공유형 협업 선정 사업' 자막에서 '장남감대여 놀이센터 공동운영'은 '장난감대여 놀이센터 공동운영'으로 표기해야 했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		
방송일자	2020. 1. 5.	시청률	0.000

## 【총 평】

<PD 리포트 이슈 본> 2020년 새해 첫 방송은 “신년기획-2020년 희망을 말하는 사람들”로 지나온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 본 올해부터 변화할 정책을 다뤘다. 2020년부터 변화될 정책 사례는 총 4개의 분야로, 국가직으로 신분 변화하는 소방관직, 군부대 및 군복무 환경 개선 사항, 창업 정책인 공유주방, 부부 동시 육아휴직제 가능 등이다.

## 【구성 및 내용】

새해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소방관들의 포부, 군입대 예정자의 각오, 창업준비여성의 꿈, 공동육아휴직제도가 첫 시행되는 새해의 부부 꿈 등 다양한 분야 사람들의 새해 소망과 다짐이 희망적으로 다뤄져 신년기획의 의미를 더 했다.

###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지난 해 강원 인제, 고성, 속초, 강릉, 동해 등까지 번졌던 산불은 역사상 최고 수준의 화재로 평가되는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동안 지방직 공무원 신분이었던 소방관은 지역에 따라 지원 격차가 컸다. 지난해 11월 소방직 국가공무원 전환 법률이 국회를 통과되었고 2020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인력과 장비가 확충되고, 국민들이 편차없는 안전한 소방서비스를 받게 됐다는 내용이 소개됐다.

### ■ 군 복무 환경 개선

오는 3월 입대예정자의 ‘기대반 걱정반’ 고민 사례가 소개되었는데, 군 복무 환경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휴대전화 사용 및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외출, 친지 면회 등이 가능해졌고, 올해부터 군대 식단이 상당히 개선되어 젊은 장병들이 선호하는 음식 및 별식들이 새로 선보일 예정이다. 또, 매달 하루 삼겹살 데이가 주어지며 특히 한겨울 혹한기를 대비한 동계패딩도 지급된다.

### ■ 공유경제

농가형 레스토랑 창업을 준비하는 여성은 직접 기른 채소로 요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농가형 레스토랑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자금이 든다. 이런 초기 창업비용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공유주방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다수의 팀들이 날짜별로 사용일을 정해 공유주방을 활용함에 따라 초기 창업비용 부담을 덜게 되는 장점이 있다.

### ■ 육아휴직 개선

육아휴직 중인 여성분의 사례를 살펴보면 아이가 어려서 개인시간은 거의 없다시피 살아간다. 일하는 것보다 육아가 훨씬 힘들다.

기존의 육아휴직은 배우자가 같은 시기에 휴직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그러나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을 하면 경제적인 부분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프로그램	귀농다큐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0. 1. 5.	시청률	0.049

### 【총 평】

<귀농 다큐 살어리랏다>는 한 사람의 직업적 전환을 통한 삶의 체험을 공유하고 통찰하여 우리 모두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하는 통찰하는 프로그램이다.

오늘 방송은 도시에서 자영업을 하다가 전남 고흥으로 귀어해서 굴 양식을 하고 있는 40대 남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했는데 아직 싱글이고 비교적 젊은 나이에 귀어를 선택한 경우여서 다른 주인공들과는 조금 차별화되는 부분도 있었다.

귀어를 통해 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를 한껏 찾고 즐기는 삶에서 질적으로 높아진 삶의 만족도를 주는 주인공 김옥진씨의 귀어 성공 사례를 통해 도농생활의 장단점 등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다. 굴을 양식하는 체험 삶의 현장의 생생한 모습과 함께 전라남도 고흥바다의 풍광이 멋지게 화면에 그려지는 시간이었다. 또, 개체굴과 수하굴의 종류와 양식 차이 등의 굴이라는 식재료에 관한 유익한 정보제공을 준 시간이었다.

### 【구성 및 내용】

굴 채취 작업부터 시작해서 굴 양식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비전, 도시 생활과 비교하는 장면, 지인들을 대접하는 장면 등이 담겨 있었다. 특히, 굴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가 많이 언급되어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개체굴의 생산성에 대한 내용이 강조되었는데 전문가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부분이었다. 굴을 함께 맛보고 하는 여유로운 모습을 통해 귀촌의 자유로움과 인간적인 모습이 간접적으로 부각 되었다.

또, 자연스럽게 굴 양식을 시작하게 된 계기로 넘어가서 국가 보조금에 대한 언급도 잠시 나왔는데 주인공이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언급해서 귀촌을 생각하고 있는 시청자들에게는 솔깃한 내용이었을 것 같다.

굴은 껍질을 까서 파는 것으로 사람의 손을 거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뒤따른다. 기계적으로 까는 방법도 있지만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손을 거치는 과정이 더 좋다고 한다. 기계 자동화 시스템으로 모든 것이 변해가는 요즘 세상에 사람의 손을 꼭 필요로 하고 일자리 제공은 물론 공동체 생활을 통해 삶의 기쁨을 나누는 모습에서 굴을 까는 기계 자동화 방법은 피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이었다.

굴이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생생한 과정이 전달되었고 비록 사먹는 것이라도 양식과 채취 및 배송 등을 통해 우리가 영양가 높게 먹을 수 있는 것도 행복과 감사함을 느끼게 전하는 시간이었다.

주인공 김옥진씨가 삶에 대한 생각을 전하면서 ‘자연에 맞춰 사는 삶’을 언급했는데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많았다. 과하지 않게 절제된 그리고 정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을 가미한 내레이션은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구성지게 만들었다.

프로그램	KTV 대한뉴스		
방송일자	2020. 1. 6.	시청률	0.037

### 【총 평】

<KTV 대한뉴스>는 기획성, 심층화, 다양성, 정보성이 돋보여 KTV 대표 종합뉴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새해 들어서도 제작진들의 활약을 기대하며, 제385회에서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중동지역 관련뉴스를 집중적으로 다뤄 주목도를 높였다. 청와대의 긴급대책과 긴급경제장관회의 내용까지 발빠르게 보도해 속보성이 살아났다.

영화 '기생충'이 골든 글로브상을 수상했다는 아이টে을 4번째로 올린 편집도 돋보였고, 한 국영화사상 최초이며 아카데미상 수상 전망까지 언급돼 기대감을 높였다. 이어 <유용화의 오늘의 눈>에서 수상 의미와 기대효과를 분석해 '깊이'를 더했다. 이와 함께 새해 달라지는 세제와 환경정책 등을 리포트 2개로 보도해 시청자 만족도를 높인 점도 긍정적이었다.

### 【구성 및 내용】

오늘은 기자 리포트가 많았고 국민적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경제 관련 뉴스가 많았던 점이 특기할 만하다. 청와대 조직개편 내용을 상세히 보도한 '靑 조직 개편...디지털혁신 비서관 신설'을 비롯해 중동지역 긴장 고조..."전면전 가능성 낮아", 긴급 NSC 상임위 "국민 안전 최우선"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중동지역 관련뉴스를 집중적으로 다뤄 주목도를 높였다. '2020년 달라진 조세·세제', '버스·철도 공기질 관리 강화...달라지는 환경 정책'을 보도해 시청자 만족도를 높였고 이낙연 국무총리의 중소기업 신년인사회 연설을 단신으로 처리하고 <오늘의 브리핑>에서 '이 총리 "경제 회복 전망"...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연설 주요 영상을 방송했다.

<오늘의 눈>에선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골든 글로브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한 것을 화두로 해서 한류의 확산을 이야기하고 백범 김구의 '문화융성국가'의 실현을 언급하면서 마무리했는데 시작과 끝이 인상적인 논평이었다.

젊은층에게 흡인력이 높은 아이টে을 다룬 <S&NEWS>는 '올해 워라밸 지수는, BTS 미국 경매시장 진출, 화성탐사의 해 등 젊은층의 관심사를 다룬 점이 유의미했고, <뉴스링크>는 '중동지역 긴장고조'를 내용적으로 보완하고 더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포괄적공동 행동계획', '소한', '설 승차권' 등 시의성 있는 내용이어서 흡인력을 높였다.

<똑똑한 정책뉴스>에서 다룬 '2020년 가족돌봄휴가 신설'은 젊은 층 부부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담아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 【참고사항】

05:55 긴급 NSC 상임위 "국민 안전 최우선"에서 좌상단 자막 "국민 안전 최소화"는 "국민 안전 최우선"이나 "국민안전 우려 최소화"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프로그램	KTV 뉴스중심		
방송일자	2020. 1. 8.	시청률	0.041

### 【총 평】

<뉴스중심> 제377회에서는 경제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경제활력대책회의, 급박한 중동사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설 민생안정대책 등을 주요 뉴스로 깊이 있게 다룬 점이 눈에 띄었다. 특히 중동사태, 대통령 신년사, 설 관련 뉴스는 리포트와 단신을 묶어서 보도한 집중화, 심층화 라인업이 돋보였다.

어린이 교통사고 감축대책 등 생활정보 뉴스, 설 관련 뉴스 등 시의성 있는 뉴스를 편집해 시청자의 이해와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

<S&NEWS>는 KTV 대한뉴스와 겹치는 부분이지만 최근 트렌드와 시사 등에 관련 있는 아이템이어서 다양성 보완과 시청층 확장 차원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구성 및 내용】

새해 벽두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경제활력대책회의 기사를 내세워 관심을 유발했고, 올해 공공기관에 60조를 투자하고 일자리 사업예산을 조기 집행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 "올해 공공기관 60조 투자 추진"을 시작으로 靑 "교민 안전 최우선...상황 예의주시", "중동 병력 파견,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등 청와대의 교민안전 최우선 방침과 중동 병력파견 관련 뉴스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 신년사 "올해 확실한 변화 체감" 등을 보도해 집중화, 심층화 라인업이 돋보였다. 대통령 신년사 내용도 문 대통령 신년사 "올해 확실한 변화 체감", "김정은 답방, 남북 함께 노력해야" 등으로 나누어 보도해 시청자 이해를 도왔다.

또, '보행로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속 20km 속도제한'은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과 무인교통단속장비 확대와 관련 다각도 분석으로 뉴스 밸류를 높인 좋은 리포트였다.

설 민생안정대책...중기·소상공인에 90조 지원, 지역사업예산 50% 1분기 조기 지원 등 시의성 있는 생활정보 뉴스 편집이 시청자의 이목을 끌었다.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도입..."실시간 수질 감시"는 실시간 수질감시와 관리체계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유용한 리포트를 만들었다.

<S&NEWS>는 젊은층에 흡인력이 높은 나혼자 산다...늘어나는 1인가구, 더 많은 여학생을 이공계로...'걸스데이', 우리 동네에 왕진 의사가 뜬다 등으로 구성상의 다양성 보완과 시청층 확장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사항】

08:30 '지난해 산재사망사고 처음으로 800명대로 진입'에서 1999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진입'보다는 '감소'라는 표현이 적절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프로그램	KTV 쟁점토론		
방송일자	2020. 1. 9.	시청률	0.018

### 【총 평】

<KTV 쟁점토론> 제77회 방송에서는 지난 1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단초로 기획된 ‘문재인 정부 2020 국정운영 방향은’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주요 쟁점으로 한반도 평화정착, 경제 혁신, 국민통합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토론하였다.

오늘 방송은 ‘문재인 정부 2020년 국정 운영 방향’에 관한 토론인 만큼 패널들도 무조건적인 낙관론이나 비판보다는 신중함과 과감한 결단력을 요하는 정부 역할, 국민들에게 이해를 시키는 다각적인 플랜 세우기, 패널 간의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서로의 의견을 인정하면서도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고민이 섞인 토론, 현실 인식을 감안한 균형 감각을 갖춘 대응 등을 나눔으로써 유익하였고 건강한 토론을 이끌어 냈다.

### 【구성 및 내용】

오늘 토론 쟁점은 ‘문재인 정부 2020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정착 가능성, 경제 혁신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 국민통합을 위한 공정사회 개혁이라는 세 영역으로 나뉘고 토론하였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고,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제 혁신은 무엇인지. 한국 경제 전망과 노동 시장 전망은 어떤지, 국민통합을 위한 공정사회 개혁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전망해 보는 시간을 마련하였고, 건강한 토론이었다.

‘한반도 평화정착 가능성’ 부문에서는 2020 남북관계 전망, 한반도 비핵화 진전 여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 냉기류인 한일 관계 속 우리 정부 역할을 논의하였다.

‘경제 혁신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 부문에서는 2020 한일 경제 건망과 일자리 정책 재정 투입 마중물 효과, 2020 노동시장 전망을 다뤘다. 경제혁신에 대해 신율교수는, ‘경제는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다’라는 정문일침(頂門一鍼)을 내던졌다. 또한 정부의 경제관료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출연자의 고언(苦言)도 뒤따랐다.

‘국민 통합을 위한 공정사회 개혁’부문에서는 우리 사회의 불신과 불공정이 저변에 깔린 이유, 공수처법에 대한 기대와 효과, 마무리 발언으로 짜임새 있는 내용으로 깔끔하게 정리된 토론이었다.

### 【참고사항】

오늘 방송에서는 패널 구성의 다양성을 추구하였다고 본다. 앞으로도 여성 패널을 적극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한반도 평화정착 가능할까?에서는 정치, 국제관계, 외교 관련 주제로 패널들이 적합했지만, 경제 혁신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서는 경제분야 패널도 포함되어 있었으면 보다 신뢰가 담보되었을 것이다.